MK BLOSSOMER

김영철 양선나 MK 교육선교사

5월 기도 제목:

- 알마티에서의 지난 한달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적응을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 텐션 학교와 카자흐스탄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지속되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지쳐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마지막 한달 남은 일정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은 "스탄" 나라이고, 무슬림 지역이지만 교회가 있고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73%가 무슬림, 23%가 러시아정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약 2%라고 합니다. 카작민족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무슬림이 되고,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민족과 가족을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본격적인 사역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텐션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카작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히려 민족과 가족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번에 카작분들에 대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텐션학교는 시내에서 30분 이상 떨어진 외각에 위치해 있습니다. 30분 정도 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오신 분에게 히치하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번역기로 우리가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까지만 태워다 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난 영어 할 줄 알아, 내가 가는 곳까지 태워줄게." 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태워 주셨습니다. 하진이와 다애도 처음으로 히치하이킹을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려다 주신 카작인분이 이곳에서 꼭 먹어야 되는 양고기, 말고기, 낙타고기 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태워주신 분과 대화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마티 알아가기
(카작에서의 첫 가족 야외 활동)

텐션 학교 체육대회

텐션 학교

텐션학교의 교사분들께 그리고 학생들에게 저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황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텐션학교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름이 '사랑도서관'입니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도서관 입구 표지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영철 선교사는 Music Club학생들과 함께하면서 학생들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대한 이슈들을 현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으로 Transition을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MK 학생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여러 나라의 학생들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양선나 선교사는 EL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학습영어 능력평가를 시작하였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장점과 보충해야 할 점들을 파악해서, 학생들을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텐션학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학생들의 학습영어를 평가하거나 이에 관해 방법을 연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정착 상황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집을 구한 것과 초기 정착 등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진이와 다애도 조금씩 이곳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많이 그리워 합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한국 상점을 보면 반갑습니다. 다애는 택배로 자기를 한국에 보내 달라고 종종 이야기 합니다. 부모로써 아이들이 한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택배로 한국을 보내달라는 말이 조금은 웃기기도 하지만, 자녀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때 MK 들을 더 마음에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선교지인 필리핀에 갔을 때는 저희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이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이 TRANSITION 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을 보니, MK 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MK를 돌보는 MK 사역자가 집에 있는 MK 들도 잘 못 돌보면서 다른 MK 들을 잘 돌볼 수 있겠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자신을 더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손 모으고 무릎으로 MK 들을 위해서 섬기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부탁 드립니다.